※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연극&뮤지컬

이건명·이홍기까지 합류…‘그날들’ 캐스팅 확정

●뮤지컬 그날들 | 8월25일~11월3일 | 서울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화제의 뮤지컬인 ‘그날들’이 캐스팅을 발표했다. 고 김광석이 부른 노래들을 뮤지컬 넘버로 사용한 ‘그날들’은 2013년 초연과 지난해 재연까지 객석 점유율 96%를 기록한 인기작이다. 총 관객 수는 25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캐스팅도 뮤지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날들’은 자체 제작방송인 ‘시그날들’을 통해 유준상, 오만석, 오종혁, 지창욱 등의 캐스팅을 먼저 공개했다. 이 방송은 조회수 1만건을 기록하는 등 개막 전부터 ‘그날들’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초연과 재연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확정지은 가운데 ‘정학’ 역에 이건명, ‘무영’ 역에 이홍기(FT아일랜드)가 추가 캐스팅됐다.

냉정하고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 ‘정학’ 역은 유준상과 오만석이 맡는다. 여기에 이건명이 합류해 ‘정학’ 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학의 경호원 동기이자 여유와 위트를 지닌 ‘무영’ 역에는 아시아 스타로 떠오른 지창욱과 다양한 작품을 통해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쌓고 있는 오종혁이 출연한다. 새로운 ‘무영’으로는 이홍기를 만날 수 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그녀’ 역에는 김지현과 MBC ‘복면가왕’, ‘섹션TV연예통신’ 리포터 등으로 친숙한 신고은이 더블캐스팅됐다. 다정하고 소탈한 성품의 대통령 전담 요리사 역에는 서현철과 이정열이 출연을 확정지었다. 초연과 재연에 출연했던 송상은이 이번에도 ‘하나’ 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여기에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신예 이지민이 가세한다.

‘맥베스’ 2년만에 공연…정통 성악가 총출동

●오페라연극 ‘맥베스’ | 7월8일~7월24일 | 서울 대학로 꼭두소극장

2014년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에서 초연돼 사랑받았던 오페라연극 ‘맥베스’가 2년 만에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과 마리아칼라스홀에서 공연된다. 초연 때에 비해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동시대의 고민을 녹여내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그로테스크하지만 우스꽝스러워 귀엽기까지 한 마녀들과 탐욕을 드러내는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이 지닌 욕망을 드러낸다.

오페라연극을 표방한 작품답게 정통 성악가들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바리톤 권한준·이성충, 소프라노 이보영·이경희, 테너 곽지웅, 베이스 전명철이 출연한다. 윤국로, 서지유, 김재만, 강서환 등 배우진도 탄탄하다. 클래식계에서 이름이 높은 피아니스트 이윤수도 있다.

오페라연극 맥베스는 베르디의 오페라로 잘 알려진 ‘맥베스’와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2014년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에서 독창적인 연출기법, 클래식과 연극의 유니크한 연결이라는 실험적인 시도를 인정받아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6월30일 마리아칼라스홀에서 공연한 뒤 무대를 옮겨 7월8일부터 꼭두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미국 인기 극작가 작품…작품성·화제성 호평

●연극 ‘글로리아’ | 7월26일~8월28일 | 서울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작품성과 화제성을 겸비한 작품들로 관객에게 인정받고 있는 노네임씨어터컴퍼니의 신작 연극이다. 2014년 30세의 나이로 오비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극작가 브랜든 제이콥스-젠킨스의 최신작이기도 하다.

잡지 편집부에서 일하는 각자 다른 배경과 생각을 지닌 캐릭터들을 통해 인종, 성별, 세대, 성적취향, 학벌 등 인간의 정체성을 포괄하는 민감한 문제들을 솔직하고 가볍게 때로는 신랄하게 전달한다.

타인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연극이다.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로 노네임씨어터컴퍼니와 환상의 호흡을 보여 준 김태형이 연출을 맡았다. 이승주, 손지윤, 임문희, 정원조, 오정택, 공예지 등이 출연한다.

뉴스디자인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Biz gallery

LGU+, 360VR 챌린지 개최

LG유플러스는 예비 전문가 100명을 선발해 360가상현실(VR) 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2016 코리아 360VR 크리에이터 챌린지’(사진) 참가자를 7월3일까지 모집한다. VR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관련 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소수 전문가 대상의 VR 교육과정이 아닌 콘텐츠와 플랫폼, 기술이 융합된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인원은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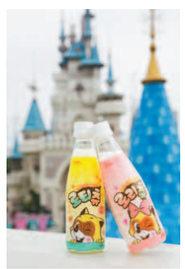
SKT, 재난안전 시범망 구축

SK텔레콤은 ‘PS-LTE’ 기술을 이용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시범망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PS-LTE는 영상과 고해상도 사진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 통신기술이다. 이날 SK텔레콤은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기능 검증 및 허가 절차를 완료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강릉-정선 지역의 시범망 구축을 마무리했다. 국민안전처는 기지국-단말기를 아우르는 재난 안전 시범망 전 영역의 기능과 커버리지 기준 검증을 마쳤다.

코베아, 일체형 가스스토브 출시

종합 캠핑레저 기업 코베아가 백패킹족, 솔로 캠핑족 등 1인 레저족을 겨냥한 포트 일체형 가스스토브 ‘알파인포트와이드 업’을 출시한다.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포트 용량을 400ml 늘리면서도 무게(535g)는 낮춰 휴대성과 사용성을 강화했다. 포트 뚜껑을 고정시켜주는 실리콘 소재 고정 링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최단시간에 최고의 열효율을 내는 열교환시스템(HES)을 적용하고 외부 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포트 일체형으로 만들어 야외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물을 끓일 수 있다. 가격은 10만6000원

롯데월드, 국내 최초 파크 전용음료 선봬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국내 테마파크 중 최초로 대표 캐릭터 음료 ‘로티츄’와 ‘로리츄’(사진)를 25일 출시한다. ‘로티츄’와 ‘로리츄’는 ‘마법의 물약’ 이라는 콘셉트로 롯데월드에서만 판매하는 복숭아향의 스파클링 주스다. 출시에 맞춰 어드벤처 1층에 위치한 자연생태 체험관 ‘환상의 숲’에서 음료가 나오게 된 과정을 그림책 조형물로 만나볼 수 있다. 조형물 주변에 복숭아 모형을 함께 설치해 ‘로티츄’와 ‘로리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며 인증샷을 찍는 재미도 쏠쏠하다. ‘로티츄’와 ‘로리츄’ 출시에 맞춰 스크래치 복권을 긁어 당첨되면 롯데월드 연간이용권, 자유이용권, 츄러스 할인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오리온, 농협과 손잡고 식품사업 진출

오리온이 농협과 합작법인을 설립(사진)하고 본격적으로 식품사업에 진출한다. 오리온과 농협은 각각 49%와 51%의 지분을 투자해 오는 7월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농협이 국산 농산물을 공급하고 합작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오리온이 판매하는 형태로 협력해 갈 계획이다. 합작 식품공장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 농공단지에 건립된다. 사업부지 3만6000m²(1만 1000평)에 연면적 약 1만7000m²(5000평) 규모의 생산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은 “60년간 쌓아온 오리온의 우수한 제조 기술과 농협의 우리 농산물 공급 및 유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더 건강하고, 더 맛있고, 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디저트 브레드 2종 출시

파리바게뜨가 빵과 디저트가 만난 신개념의 디저트 브레드 2종을 출시했다. ‘티라미수 브레드’는 폭신한 빵과 파리바게뜨 커피 브랜드 ‘카페 아다지오’의 깊은 풍미,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크림치즈, 진한 코코아가 만나 탄생한 신개념 디저트 브레드다. 입에서 녹는 부드러운 식감과 향기로운 풍미가 일품이다. ‘초코크림 소보루’는 헤이즐넛 풍미가 가득한 초코크림과 부드러운 생크림이 조화를 이룬 소보루빵이다. 헤이즐넛은 너트 특유의 향 덕분에 초콜릿, 쿠키, 아이스크림과 잘 어울린다. 덕분에 고소한 맛이 강해져 초콜릿의 맛이 풍성해진다.